



오늘의 날씨와 생활

8월 13일 화요일 음 7월 13일 (5월)

기상정보

맑음

오 전	강 수	확 률	오 후
0%	제 주	0%	
0%	성 산	0%	
0%	고 산	0%	
0%	서귀포	0%	

주간예보			
〈문의 ☎국번없이 131〉			
내일	구름 많음	26/31℃	
모레	구름 많음	26/30℃	

월드뉴스

트럼프, 한국 방위비 인상 ‘자화자찬’

“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”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 일(현지시간)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 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 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11일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,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 뉴욕에서 개최된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 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“브 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.13달 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 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”고 말했다.

이런 언급은 한국이 부담해야 하 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해석된다.

올해 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 상에서 미국은 당초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(약 1조2000억원)를 제시 했고, 최종적으로는 10억 달러보다

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.

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된 바 있 다. 작년보다는 8.2% 인상된 수치다.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훌륭한 TV를 만들고 변장한 경제를 갖고 있 다고 언급하며 “우리가 왜 그들의 방 위를 부담해야 하는가”라고도 말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터프한 협 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제인 대통령 의 억양을 흉내 냈고, 관세 논의와 관 련해선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을 따 라 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. 뉴욕포스트는 “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과 일본, 유럽연합(EU) 같은 동맹 국들을 놀렸다”고 지적했다. 연합뉴스

발행인·인쇄인·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

☎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

대표전화 064-750-2114

광고접수 본 사 750-2828 / FAX 752-7448

서귀포지사 732-5552 / FAX 732-5559

인터넷 서비스 www.ihalla.com

e-mail : hl@ihalla.com

기사제보 750-2214 / FAX 752-9790

구독신청·배달 750-2330

구 독 료 월정 10,000원, 1부 500원

1989년 4월 22일 창간 / 등록번호: 1988. 12. 5 등록번호: 제주, 가00002

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.

한라칼럼



송창우

농부

매일 폭염과 가마솥이라는 짜증 섞인 푸념을 하며 여름 태양을 맞이한 다.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이 가늘어 지더니 여유로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만큼이나 소갈머리가 없어지기 시 작하면서 민둥산처럼 변해가고 있 다. 자연히 머리에서 솟아나는 땀방 물을 가두지 못한다. 최근엔 주변버 리도 점점 빠져 이마에 머리카락을 질 끈 졸라매야 졸출 눈으로 들어오는 땀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니 세 월이 흐르는 것을 새삼 느낀다.

굵은 허리를 펴려고 일어서서 파 란 하늘을 보면 흰 구름 위에 그보다

한·일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는 제주통상



고순심

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장

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 가(화이트리스트)에서 제외한지 10 여일이 지나고 있다. 일본정부의 수 출규제로 시작한 무역분쟁은 일본제 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관광 자제 물결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 다. 일부에서는 한·일 수교 이후 최악 의 상황으로까지 진단하기도 한다.

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 과 국제적인 분업구조를 일시에 무너 뜨리는 비정상적 도발행위로 한·일 양 국의 경제에 많은 피해와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.

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한·일 무역 전쟁의 파도 속에서 제주도정에서는 올해 상반기 총 1300만 달러를 수출, 홍콩에 이어 두 번째 수출국가인 일 본을 상대로 제주기업의 피해를 최소

폭염과 한일전을 이기려면

깊은 구름 몇 조각이 떠나면서 갇가 지 형상을 하고 한가로이 떠다닌다. 태양은 어제도, 그제도,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해 오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얗 게 열기를 발하고 있다.

아름다운 우리 푸른 지구별이 붉 은 별로 변한지 오래다. 인간이 땅을 파헤치고, 자동차와 공장과 에어컨에 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산더미처 럼 배출하는 쓰레기로 지구의 빼인 산과,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는 바 다는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다. 기 후변화는 인류가 자초한 일이고, 기 후와 농사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이다.

최근 농사를 짓는 사람을 더 열 받 게 하는 것은 이웃이라는 일본이 하 는 짓거리다. 한국과 일본, 제주와 일본과의 관계는 같은 선상에 있지 만 약간의 특별함도 있다. 일제강점 기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스스로 갔

거나, 4·3의 와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건너갔다. 일본에 도착한 제주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팔시를 받아가 면서 허드렛일을 하고, 시장 노점에 서 콩나물을 팔아가면서 어렵사리 모은 돈을 어렵고 우리가 못살던 시 절 고향으로 보냈다. 그 돈으로 전기 를 끌어와 불을 밝히고, 수도를 시설 하고 마을 안길을 포장했다. 그래서 재일동포 어른들을 고마워했다.

하나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아베정권과 그 추종자들은 잘못된 역사와 인권 인식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경제침략 을 하면서 한일관계를 빙하시대로 돌리고 있다. 평범한 일본인들과 어 울려 살아가는 재일동포 후손들까지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. 유치한 싸움을 걸어온 일본 위 정자들을 보면서 분노와 불안이 섞 인 눈으로 미래를 근심하고 있다. 이 걱정은 우리만이 아니라 양심을 가

진 일본 시민사회도 자각해서 촛불 을 들고 나와 아베정권을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이 반증이 아닐까. 치사한 아베는 그렇다고 해도 양 비론으로 일본과 타협을 주장하는 한국의 지식인들, 끈대처럼 패배주의 에 져는 정치인들, 일본의 우익과 같 은 논리로 국민들의 불안을 부채질 하는 언론들, 조국을 빼앗겼던 시절 나라보다 자신의 영달을 쫓아가던 친일매국노로 비춰지는 것은 뭤까.

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 실도 엄연한 역사다. 먼 나라 이국땅 에서 풍찬노숙하면서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선배들에 비하 면 이젠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. 약간 은 힘들겠지만 두려워한 할 필요도 없다. 우리 아베와 그 조무래기들을 미워할 뿐이다. 냉정함을 유지하면 서 선량한 일본인들과 함께 해야 한 다. 그래야 폭염도 일본도 이길 수 있다.

열린마당

개인위생 관리로 A형간염을 예방합시다



강민선

제주보건소

최근 부산지역에서 A형 간염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.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 류인 ‘A형 간염 바이러스’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간염의 한 종류로서 오심, 구토, 전신 쇠약감, 황달 등의 간염증상과 장기능 검사 이상을 보이 는 경우를 말한다.

A형 간염은 분변 경구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이다. 대변을 통해 배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실온에서도 몇 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하므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. 바 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평균 4주 가 량의 잠복기를 거치고 임상 증상이 나 타난다. 주로 비특이적인 증상으로서 감기몸살처럼 열이 나거나 식욕이 감 소하고, 구역질과 구토, 전신적인 쇠

약감, 복통과 설사를 한다. 성인은 며 칠 후에 황달이 생겨서 눈이 노래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질 수 있다. 어린이 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해진다.

대부분의 급성 A형 간염은 자연적 으로 잘 회복되므로, 특이적 치료는 없으며 충분한 영양공급과 휴식이 중요하다. 술과 각종 약제, 소위 건 강식품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. 또한 심한 운동이나 장기간의 육체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.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A형 간염환자는 1만 1493명이 발생했고 제주에서는 42명 의 환자가 발생했다.

A형 간염은 대변으로부터 오염된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. A형 간염 바이러스 는 85℃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사라 지기 때문에 끓인 물을 마시거나 충 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예 방이 가능하다. 그리고 화장실을 이 용한 후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. A형 간 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예방접종이 지름길이다.

제주도정 소식

올해 노지감귤은 생리낙과가 덜 되어 소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,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농업인 스스로 감귤 열매 숙기를 반드시 실천합시다. - 제주특별자치도 -

한라도서관 행사 안내
• 씨네마 콘서트 in Four 뮤지컬
○ 일 시 : 2019. 8. 23. (금) 20:00~21:30
○ 장 소 : 한라도서관 야외광 ○ 대 상 : 500명(누구나 참여)
○ 접수방법 :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
• 2019 한라도서관 「인문독서 아카데미」
○ 기 간 : 2019. 8. 22. ~10. 24(매주목). 19:00~21:00
○ 장 소 : 한라도서관 강요실 ○ 대 상 : 고등학생 및 일반인 50명
○ 강의내용 : 호모 사피엔스의 인간학
• 기원 연세대학교 초청 “북드림 파격수다” 콘서트
○ 일 시 : 2019. 8. 24. (토) 14:00~ ○ 장 소 : 한라도서관 시청각실
○ 내 용 : 유전체 편집의 시대, 인류의 미래는?
○ 접수방법 :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- 접수일 : 5.30(목) 09시~마감시까지
○ 신청 및 문의 710-8847(선착순 접수)

9월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
○ 접수기간 : 2019. 8. 12. (월) ~ 8. 21. (수)
○ 교육과정 : 파워포인트 심화(3기) 등 7개 과정
○ 교육인원 : 과정당 30명 내외
○ 교육장소 : 도민정보센터 [(고용복지플러스센터(구. 상록회관) 5층)]
○ 신청방법 : 인터넷 접수
(인재개발원 홈페이지 <http://www.edu.jeju.kr>, 로그인 후 수강 신청)
○ 문의 :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710-7434, 도민정보센터 710-2376

제주·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안내
○ 4·3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안내
- 지원대상: 4·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
- 신청접수: '19. 4. 1~상시 접수
- 신청방법: 도내 거주자(주소지 읍면동), 도외 거주자(희생자 본 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)국외 거주자(제주도 4·3지원과)
- 신청서류: 신청서, 위임장,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, 주민등 록등본, 사진 2매(3×4)
※ 신청서: 읍면동 및 도청 홈페이지 '유족증' 클릭
○ 신청 및 문의처
· 제주도청 4·3 지원과 064)710-8434-6
· 생활보조비: 제주자치도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생활보조비 담당)
· 생존희생자, 유족진료비, 머느리진료비: 제주4·3평화재단 064)723-4309, 4340

제주시정 소식

2019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계획 안내
○ 지원대상 : 도내에서 농·임·축산업을 주업으로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
※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하고, 생산자 단체 (법인)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.
○ 접수기간 : 2019. 8. 1. ~ 8. 20.(20일간)
○ 지원조건 : 자금별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
가) 운동자금 :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
나) 시설자금 : 3년까지 5년 균분상환(10회 균분상환)
○ 용자대상자 부당이율 : 0.0%
○ 문 의 : 제주시 농정과 ☎064)728-3314
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(산업부서)

제주시 시민상담실 운영
○ 상담시간 : 평일 14:00 ~ 17:00
○ 운영장소 :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창구
○ 상담방법 : 방문 민원인 대면 상담 및 사전 예약제 병행
○ 문 의 : 제주시 종합민원실 ☎064)728-2102
○ 상담분야

분 야	성 명	요일	상담내용	비 고
지 적	김석진	월	지적·부동산 공시지가 상담	지적 전문과
지 방세	강남철	화	지방세 상담	지방세 전문과
건 축	한원훈	수	건축 상담	건축 전문과
국 세	오승훈	목	국세 상담	세무사
생활법률	김정환	금	등기업무, 소장 작성 등 상담	법무사

2019. 8월 공동분 주민세 납부 안내
○ 납세의무자 : 7월 1일 현재 개인세대주, 개인사업자, 법인
○ 납부기간 : '19. 8. 16. (금) ~ 9. 2. (월)
○ 문 의 :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☎064-728-2354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2019.6.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익신청 제출기간 운영
○ 열람 및 이익신청 제출기간 : 2019. 8. 9. ~ 8. 28. (20일간)
○ 열람대상
- 2019.1.1.~5.31 까지 신축, 증축, 용도변경, 일부면적 및 토지 분할·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아파트 연립, 다세대)가격
○ 열람방법
- 제주시 세무과,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
- 인터넷 열람
· 개별주택가격 : 제주시 홈페이지(www.jejusi.go.kr)
· 공동주택가격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
○ 이익신청 제출
-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로 이익신청 가능
○ 문 의 : 제주시 세무과 ☎064)728-2341-4

서귀포시정 소식

2019년 서귀포시 어린이 안전표어 · 포스터 공모전 열림
○ 공모기간 : 2019. 7. 22(월) ~ 8. 30(금)
○ 공모대상 :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생
○ 공모주제 :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안전에 대한 주제
○ 공모분야 : 2개 분야(안전표어, 안전포스터)
○ 응모형태
- 안전표어 : 글자 수 16자 내외 (띄어쓰기는 글자 수 미포함)
- 안전포스터 : 8절지(394mm×272mm)
○ 응모내용
-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
- 일상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등
○ 시상규모 : 최우수 2명, 우수 6명, 장려 16명
○ 응모방법 : 이메일(kdw1911@korea.kr)및 우편, 직접 방 문접수
○ 접수 및 문의 :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☎ 760-3146)

서귀포시 동부도서관 8월 인문학 강연 열림
○ 일 시 : 2019. 7. 22(목) 18:30
○ 장 소 :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
○ 주 제 : 당신이 SF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
○ 강 사 : 복도훈 작가
○ 수강료 : 무료 ※ 중·고생 강연 참여시 봉사시간 2시간 인정
○ 신청방법 : 홈페이지, 방문, 전화신청 / 선착순 접수
○ 접수 및 문의 : 서귀포시동부도서관 ☎ 760-3692~3698)

토성과 견우직녀별 관측 프로그램 운영 열림
○ 운영일시 : 2019. 8. 6(화) ~ 8. 25(일) / 20:00~22:00 / 월요일 휴관
○ 운영장소 :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
○ 참여대상 : 도민, 관광객 등 누구나
○ 운영내용 :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 토성과 7월 7석에 서 로 만난다는 전설을 가진 견우별과 직녀별 관측
※ 날씨가 흐린 경우(눈·비·안개·구름많음·강풍시) 관측불가
- 대체프로그램 : 천체망원경 종류와 구성강의 운영
○ 관 판 료 : 성인 2,000원, 어린이·청소년 1,000원, 도민 50%감면
○ 문의전화 :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☎ 739-9701, 9702)

주간농업농촌소식

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'2019 제주감귤박람회 성금 개최' 홍보 및 봄 조성을 위한 '풋귤 만들기 체험 행사'를 개최합니다.

- 행 사 안 내 -

- 행 사 명: 풋귤청 만들기 체험 행사
- 행사주관: (사)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
- 행사기간: 2019. 8. 16. (금) ~ 17. (토), 10:00~15:00
※ 10:00-10:50, 11:00-11:50, 13:00-13:50, 14:00-14:50 4회 운영
- 행사장소: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야외광장
- 계획인원: 풋귤 가공 희망자 1,000명 (선착순 접수)
- 주요내용
 - 풋귤의 기능적 가치 홍보
 - 풋귤 활용 풋귤청 가공 체험
 - 풋귤 씻기(1kg) → 썰기(절단) → 설탕 버무리기 → 통에 담기
 - ※ 참가자는 풋귤 1kg을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구매(3,000원) 가능
 - ※ 설탕 1kg, 용기 등 체험 재료 일부 지원
- 풋귤 활용 가공 제품 전시: 풋귤청, 풋귤칩, 화장품 등
- 풋귤 판매 및 감귤박람회 홍보 리플릿 배포 등
- 풋귤청 만들기 체험 참가자 모집
- 모집인원: 1,000명(1일 500명)
- 모집기간: 인원 마감 시까지 선착순 모집
- ※ 모집 인원 미달 시 현장 접수함
- 신청방법: 전화(☎710-3092-98) 또는 팩스(710-3099)

담당부서 :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(710-3092)